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에 나타난 명예와 수치의 수사학:
'명예와 수치의 법정'으로 본 데살로니가전서 4:1-8

임충열 (안양대학교, 강사)

1. 서론

명예와 수치는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수사학적 담론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권면하며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몸을 절제하라”(살전 4:4)고 말한다. 여기서 “존귀함”(τιμή), 즉 ‘명예’(honor)는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행위의 윤리적 가치를 규정하는 명예 담론의 일부이다. 로마서에서도 바울은 부도덕한 행위를 지속하는 이방인들을 “수치”(ἀτιμία)의 언어로 묘사하며(롬 1:26-27), 고린도 교회의 근친상간 문제에서는 공동체적 수치주기(shaming)를 통해 언약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전 5:9-13). 이처럼 바울서신에서 명예와 수치의 언어는 윤리적 권면의 수사학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그럼에도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에 대한 연구는 명예와 수치의 수사학적 기능을 충분히 조명하지 못했다. 기존 연구들은 주로 바울의 윤리 사상의 기원과 배경-헬레니즘 철학, 유대 율법 전통, 혹은 신학적 주제-에 집중하였다. 일부는 헬레니즘 세계의 철학적 윤리 담론 속에서 바울의 사고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에,¹⁾ 다른 이들은 유대 율법 전통의 도덕 규범을 추적한 연구들에,²⁾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거룩’이나 ‘사랑’(ἀγάπη)과 같은 신학적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다.³⁾ 이러한 연구들은 바울의 윤리에 다양한 통찰을 제공했지만, 그의 윤리적 담론 속에서 명예와 수치의 언어가 수행하는 수사학적 기능은 충분히 조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에 나타난 명예와 수치

-
- 1) Loveday Alexander, “Better to Marry than to Burn,” in *Ancient Fiction and Early Christian Narrative*, ed. R. F. Hock, J. B. Chance, and J. Perkins (Atlanta: Scholars Press, 1998), 235-56; Dale B. Martin, “Paul without Passion: On Paul’s Rejection of Desire in Sex and Marriage,” in *Constructing Early Christian Families: Family as Social Reality and Metaphor*, ed. Halvor Moxnes (New York: Routledge, 1997), 201-15; David Frederickson, “Passionless Sex in 1 Thessalonians 4:4-5,” *WW* 23 (2003): 23-30; J. Edward Ellis, *Paul and Ancient Views of Sexual Desire: Paul’s Sexual Ethics in 1 Thessalonians 4, 1 Corinthians 7 and Romans 1* (New York: T&T Clark, 2007).
 - 2) Robert Hodgson Jr., “1 Thess 4:1-12 and the Holiness Tradition (HT),” *SBLSP* 1982 (Chico, CA: Scholars Press, 1982), 199-215; Peter J. Tomson, *Paul and the Jewish Law: Halakha in the Letter of the Apostle to the Gentiles* (Minneapolis: Fortress, 1990); George P. Carras, “Jewish Ethics and Gentile Converts: Remarks on 1 Thess 4:3-8,” in *The Thessalonian Correspondence*, ed. Raymond F. Collin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0), 306-15; Ronilick E. K. Mchami, “Paul’s Use of the Instructions of the Mosaic Law in His Paraenesis: 1 Thessalonians 4:1-8,” *Africa Theological Journal* 29 (2006): 74-90; Scott D. Mackie, “The Two Tables of the Law and Paul’s Ethical Methodology in 1 Corinthians 6:12-20 and 10:23-11:1,” *CBQ* 75 (2013): 315-34.
 - 3) David R. Cartlidge, “1 Corinthians 7 as a Foundation for a Christian Sex Ethic,” *JR* 55 (1975): 220-34; T. J. Deidun, *New Covenant Morality in Paul*, *AnBib* 89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81); Brian S. Rosner, *Paul, Scripture, & Ethics: A Study of 1 Corinthians 5-7* (Grand Rapids: Baker, 1999); Francis Watson, *Agape, Eros, Gender: Toward a Pauline Sexual Eth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의 수사학에 주목한다. 바울은 명예와 수치의 담론을 통해 이방인 회중을 언약 백성으로 재정향(reorient)시키며, 구약의 언약 전통에 뿌리를 둔 윤리적 정체성을 공동체적 삶 속에 구체화한다. 따라서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을 명예와 수치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은, 그가 이방인 공동체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언약 백성의 윤리적 정체성과 가치체계를 재구성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본 연구는 바울의 윤리적 권면의 핵심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1-8에 집중한다. 이 본문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ἐν ἁγιασμῷ καὶ τιμῇ, 4:4)라는 독특한 표현을 통해 거룩함과 명예의 상관관계를 보여줄 뿐 아니라, 도덕적·사회적 재형성이 필요한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명예와 수치의 수사학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드러낸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종교적으로 혼합된 도시 문화로 유명했으며,⁴⁾ 이러한 환경 속에서 바울은 신자들의 윤리적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하기 위해 명예와 수치의 담론을 전략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명예와 수치의 법정’(the court of honor/shame)이라는 수사학적 개념을 중심으로 살전 4:1-8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명예와 수치의 수사학을 통한 바울의 윤리적 권면이 단순한 도덕 규범을 넘어, 복음에 근거한 공동체의 윤리적 자기이해와 종말론적 거룩을 형성하는 담론으로 기능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명예와 수치의 수사학의 개념과 배경

2.1. 명예와 수치의 정의

브루스 말리나(Bruce J. Malina)의 『신약의 세계』(*The New Testament World: Insights from Cultural Anthropology*) 이후, 신약의 명예(honor)와 수치(shame)를 문화인류학적으로 탐구하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말리나는 명예와 수치가 “1세기 지중해 세계의 핵심 가치”로 기능한다고 정의하며, 그것이 사회 전체의 도덕 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적 가치 체계’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⁵⁾ 랜돌프 리처즈(Randolph Richards)와 브랜든 오브라이언(Brandon J. O’Brien)은 이를 “명예/수치 체계”(honor/shame system)로 설명하며, 명예와 수치가 공동체의 도덕적 경계를 설정하고 보호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⁶⁾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공동체 수준의 통제 메커니즘을 강조하면서, 바울이 강조한 개인 내면의 도덕적 변화, 곧 도덕적 감정의 형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⁷⁾

최근 테리 라우(Te-Li Lau)는 『수치를 방어하기: 바울서신에서 수치의 형성적 힘』(*Defending Shame: Its Formative Power in Paul's Letters*)에서 수치를 “도덕적 감정”(moral emotion)으로 규정하며, 명예-수치 접근법의 한계를 비판하였다. 그는 “명예-수치 접근법은 수치를 주로 사회적 가치로만 이해하여 그 경험 자체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⁸⁾ 수치를 “상호 연결성의 정서”(the emotion of interconnectedness)로 이해한다. 즉,

4) Gary S. Shogren, *1 & 2 Thessalonian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2), 20; Jeffrey A. D. Weima, *1-2 Thessalonians*, BECNT (Grand Rapids: Baker, 2014), 9-23.

5) Bruce J. Malina, *The New Testament World: Insights from Cultural Anthropology*, 3r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1), 27-28.

6) Randolph Richards and Brandon J. O’Brien, *Misreading Scripture with Western Eyes: Removing Cultural Blinders to Better Understand the Bible*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12), 127.

7) David W. Pao, “Let No One Despise Your Youth: Church and the World in the Pastoral Epistles,” *JETS* 57, no. 4 (2014): 746.

8) Te-Li Lau, *Defending Shame: Its Formative Power in Paul's Letters* (Grand Rapids: Baker

“우리는 자신이 동일시하거나 소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느낀다”라는 것이다.⁹⁾ 라우의 정의는 수치의 사회적 차원과 내면적 차원을 통합하며, 수치를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도덕적 감정 혹은 윤리적 정서로 제시한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명예와 수치를 집단의 공유 가치와 도덕적 경계 인식에 의해 내면적으로 경험되는 신학적·도덕적 감정으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은 자신이 속하거나 동일시하는 집단의 구성원들—‘명예와 수치의 법정’(the court of honor and shame)—앞에서 이러한 감정을 경험한다. 바울은 이 감정적 역학(emotional dynamics)을 수사학적 장치(rhetorical device)로 활용하여, 이방 교회들 가운데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윤리적 감수성을 재형성한다.

따라서 명예와 수치의 수사학은 “독자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훈계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적 도구(pedagogical tool)”로 기능한다.¹⁰⁾ 바울은 구약의 내러티브(창조 질서), 율법(거룩 법전·신명기 법전), 그리고 지혜 전통을 통해 확인되는 언약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를 교회의 삶과 윤리적 실천에 적용하고 강화하였다. 그는 공동체의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 행동에는 명예를 부여하고, 그 경계를 넘는 행위에는 수치를 일깨워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시켰다. 이러한 관점에서 명예와 수치의 수사학을 고찰하는 일은 바울의 윤리 담론이 어떻게 교회의 정체성과 행위 기준을 형성했는지를 밝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2.2. ‘명예와 수치의 법정’의 정의

본 연구는 데살로니가전서 4:1-8의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을 분석함에 있어, ‘명예와 수치의 법정’이라는 수사학적 개념을 핵심적 분석의 틀로 사용한다. 이 법정은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도덕적 가치와 정서를 평가받는 상징적 장(場)으로 기능한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이 담론을 활용하여 구성원들 안에 도덕적 감정을 내면화하고 강화한다.

이 개념은 문화인류학의 ‘평판의 법정’(the court of reputation)에서 유래한다. 영국의 인류학자 줄리안 피트-리버스(Julian Pitt-Rivers)는 이를 “공적 여론이 명예를 부여하거나 수치를 결정하는 재판정”으로 설명했다.¹¹⁾ 그는 명예가 공적 증인의 승인에 의해 돌이킬 수 없게 확정된다고 보았으며, “공적 조롱은 죽음을 초래한다”고 표현했다.¹²⁾

브루스 말리나 역시 명예가 “공공성”(publicity)—즉 증인의 존재—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았다. 명예와 수치는 대중 여론의 판단, 곧 평판의 법정에서 결정된다. “공개적인 칭찬은 생명을 불어넣고, 공개적인 조롱은 생명을 앗아간다.”¹³⁾ 이러한 평판의 법정은 명예와 수치를 판단하는 공적 담론의 장으로서, 1세기 지중해 세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핵심 메커니즘이라는 것이다. 말리나는 이러한 문화인류학적 개념을 신약 해석에 처음 적용한 학자였다. 그는 1세기 지중해 사회의 명예-수치 문화를 통해 신약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윤리 담론을 설명하며, 신약 본문 속 인간관계의 역학과 공동체의 가치 체계를 밝히고자 했다.

이후 데이비드 드실바(David A. deSilva)는 말리나의 접근을 더욱 발전시켜, 평판의

Academic, 2020), 9.

9) Lau, *Defending Shame*, 137.

10) Lau, *Defending Shame*, 10.

11) Julian Pitt-Rivers, “Honour and Social Status,” in *Honour and Shame: The Values of Mediterranean Society*, ed. John G. Peristiany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6), 27.

12) Pitt-Rivers, “Honour and Social Status,” 27.

13) Malina, *The New Testament World*, 42.

법정 개념을 교회·유대 공동체·철학 학파 등 소수 집단(minority group)의 실제 윤리적·수사학적 맥락 속으로 확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공동체들이 평판의 법정을 통해 내부의 도덕적 질서를 유지하고 외부의 부정적 평가를 극복했다고 분석한다. 드실바에 따르면, 평판의 법정은 공동체의 ‘주요 인사’(significant others)–즉 공동체 내에서 도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 동료 신자, 나아가 하나님–로 구성된다. 신자들은 이러한 법정을 의식함으로써 공동체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외부 사회의 시선을 상대화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법정의 최고 재판관으로서 명예와 수치의 기준을 결정하시며,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를 반영하는 윤리적 공동체로 기능한다.¹⁴⁾

그러나 본 연구는 기존의 ‘평판의 법정’이라는 용어 대신 ‘명예와 수치의 법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전자는 외적 평판에만 초점을 맞춘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명예와 수치의 법정’은 기존 개념을 확장하여, 신적 차원(윤리적 판단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뜻과 신적 판단), 내면적 차원(성령에 의해 새로워진 마음과 도덕적 감정 그리고 신자의 내면적 판단), 공동체적 차원(교회의 윤리적 판단과 그 가치의 구현), 그리고 종말론적 차원(주의 날의 최종 심판과 그 실재가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종말론적 현재)을 아우른다. 이 명칭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윤리적 판단이 본질적으로 명예와 수치의 문제임을 보다 분명히 드러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판의 법정’ 대신 ‘명예와 수치의 법정’이라는 확장된 개념을 통해 바울의 윤리담론을 해석할 것이다.

2.3. 바울의 명예와 수치의 법정

명예와 수치의 법정을 활용한 수사학적 전략은 바울만의 독창적 발상이 아니다. 이는 호메로스의 서사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로마 스토아 철학자들(세네카, 무소니우스 루푸스, 에픽테투스), 그리고 구약의 율법과 지혜 문헌(창세기, 레위기, 신명기, 잠언, 집회서, 지혜서)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¹⁵⁾ 이들은 모두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명예와 수치의 담론을 사용하여 구성원의 도덕적 감정에 호소했다.¹⁶⁾

그러나 바울의 명예와 수치의 법정은 그리스-로마의 윤리와 달리 언약의 하나님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명예와 수치는 언약의 하나님께 근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재정의 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 성취 안에서 유대적 명예와 수치의 법정을 새롭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이방인 교회들에게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도덕적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완성하셨으며, 성령을 통해 교회를 새 언약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이해한다. 이로써 교회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명예와 수치의 법정을 이루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바울의 명예와 수치의 법정을 다음의 네 가지 차원에서 고찰한다:

1. 신적 차원: 명예와 수치의 최종 판단은 궁극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곧 성부 하

14) David A. deSilva, *Honor, Patronage, Kinship & Purity: Unlocking New Testament Culture*, 2nd ed.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22), 33-34, 52, 55.

15) 참조, Chungyeol Lim, “Paul’s Use of the Rhetoric of Honor and Shame in Sexual Ethics: A Study of Paul’s Moral Teaching of Sexuality,” (PhD d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25), 32-127.

16) David A. deSilva, *Despising Shame: Honor Discourse and Community Maintenance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SBLDS 152 (Atlanta: Scholars Press, 1995), 86-155.

나눔의 뜻과 그 뜻에 따른 그리스도의 통치,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께 근거한다.

2. 내면적 차원: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적 열망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에 따라 명예와 수치를 판단한다.

3. 공동체적 차원: 교회는 언약 공동체로서 도덕적 판단을 수행하며, 구성원 상호 간의 권면과 모범을 통해 공동체 윤리를 구현한다.

4. 종말론적 차원: 현재의 교회 안에 세워진 명예와 수치의 법정은 주의 날에 완성될 궁극적 법정을 예시하며, 그 종말적 실현을 향해 나아간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 네 가지 차원을 해석의 틀로 삼아 데살로니가전서 4:1-8에 나타난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을 분석하고자 한다.

3. 바울의 명예와 수치의 법정의 신적 차원

바울이 명예와 수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판단에 달려 있다.¹⁷⁾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로마의 신화적 신들이나 철학자들의 관념적 존재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곧 자신의 백성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며 그들의 삶을 규정하시는 분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1-8의 윤리적 권면에서 삼위일체 언약의 하나님을 명예와 수치의 법정의 최고 권위이자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¹⁸⁾ 하나님은 모든 윤리적 영역—특히 인간의 거룩과 관계된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뜻을 통해 명예와 수치의 기준을 세우신다.

3.1. 언약의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4:1-8에서 바울은 언약의 하나님을 윤리적 삶의 판단과 방향을 규정하는 궁극적 기준(standard)이자 목적(telos)으로 제시한다. 그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ἀρέσκειν Θεῷ, 4:1)을 윤리적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언약 공동체가 공유하는 명예로운 가치로 상기시킨다.¹⁹⁾ 바울은 “형제들아”(ἀδελφοί)라는 가족적 호칭을 사용하여 신자들의 정체성을 언약 백성의 내부자 담론(insiders' discourses) 안에서 강화한다.

그는 “하나님의 뜻”(θέλημα τοῦ Θεοῦ)을 기준으로 명예의 길과 수치의 길을 대조한다. “너희의 거룩함”(ὁ ἁγιασμός ὑμῶν, 4:3a)은 하나님의 뜻이며 곧 명예의 길이다.²⁰⁾ 반면 음행(πορνεία)과 정욕(πάθος ἐπιθυμίας), 그리고 타인의 아내를 범하는 부정한 행위(ἀκαθαρσία)는 수치의 길이다(4:3b-6).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4:7)에서 “~이 아니라, ~이다”(οὐ ... ἀλλὰ)라는 대조적 구조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거룩함(ἁγιασμός)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 문맥에서 거룩함은 명예를, 부정은 수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은혜로 부름받은 자의 명예로운 응답으로,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언약적 관계를 저버리는 수치의 행위로 제시한다.

바울은 4:8에서 이러한 불순종을 언약의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으로 규정하며, 수치

17) deSilva, *Honor, Patronage, Kinship & Purity*, 52.

18) 참조, Weima, *1-2 Thessalonians*, 277-83, 특히 277.

19) James W. Thompson, *Moral Formation according to Paul: The Context and Coherence of Pauline Ethics* (Grand Rapids: Baker, 2011), 72.

20) Thompson, *Moral Formation*, 71-72; Lau, *Defending Shame*, 146-47.

의 언어인 ἄθετέω를 사용하여 그 심각성을 강조한다. 이 동사는 단순히 ‘거절하다’는 의미를 넘어서, ‘권위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다’는 수치의 함의를 지닌다.²¹⁾ 따라서 이는 단순한 불복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멸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거룩함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곧 언약의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는 행위이다.²²⁾ 바울은 이러한 수치의 언어를 통해 언약 백성의 명예로운 정체성—곧 거룩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결국 바울에게 하나님은 명예와 수치의 법정의 최고 기준이자 심판자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은혜로 주어진 명예를 삶으로 드러내는 일이며, 정욕에 이끌려 부정하게 행하는 것은 그 언약적 명예를 훼손하는 수치스러운 일이다.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약의 명예로, 불순종을 언약의 수치로 대조시키며, 신자들의 윤리적 정체성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정립한다.

3.2. 언약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전서 4:1-8에서 그리스도는 언약 백성을 다스리시며, 윤리적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언약적 통치자로 나타난다.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주 예수 안에서”(ἐν κυρίῳ Ἰησοῦ, 4:1) 그리고 “주 예수를 통해서”(διὰ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 4:2) 전달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는 그의 윤리적 명령이 사도의 개인적 권위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적 권위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울이 사용하는 명사 παραγγελία(“명령들”)는 “통치자의 칙령”(edict of a ruler)을 의미하며,²³⁾ 이는 바울의 윤리적 권면이 곧 주의 명령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윤리적 순종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부름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명령에 응답하는 행위이다.

그리스도의 윤리적 명령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1-2에서 주의 명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요약하며, 이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으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밝힌다. 이어지는 4:3-8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주의 명령을 구체화한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4:3a).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명령이 거룩함(ἁγιασμός)을 중심으로 하며, 그것이 명예와 수치의 법정에서 평가될 윤리적 기준임을 드러낸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명예의 길—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따르도록 권면한다(4:3b-6a).

더 나아가 언약의 그리스도는 종말론적 재판관으로서 명예와 수치를 평가하실 분으로 제시된다. 바울은 “주께서 모든 일에 복수하시는 이”(ὁ κύριος ἐκδικῶν, 4:6b)라고 하며, 주 예수를 신원하시는 심판자로 묘사한다. 여기서 ἐκδικῶν(복수자)은 단순히 응보를 집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명예와 수치의 최종적 판단을 내리시는 재판관이다.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심판은 그의 현재적 통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각 사람의 삶은 주의 날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드러나 평가받게 된다(3:13; 4:6).

이처럼 바울은 언약의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는 통치자, 종말론적으로는 재판관으로 묘사함으로써, 명예와 수치의 법정이 단지 사회적 담론이 아니라 종말론적 실재로 향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성도들이 윤리적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들은 이미 은

21) BDAG, "ἄθετέω," 24.

22) Shogren, *1 & 2 Thessalonians*, 174.

23) BDAG, "παραγγελία," 760

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미래의 명예를 현재의 삶 속에서 미리 살아내는 것이다.

3.3. 언약의 성령

데살로니가전서 4:1-8에서 성령은 단 한 차례(4:8)만 언급되지만, 그분의 역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다른 위격들과 동등한 신학적 비중을 가진다. 바울은 “이것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4:8)고 선언한다. 이 진술은 성령이 언약 공동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신자들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할 근거를 제공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리적 권면을 거부하는 것은 단지 사도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거스르는 행위로서, 하나님 자신을 경시하는 것이다(살전 5:19).

바울은 이 구절에서 동사 ἄθετέω(“저버리다”)를 다시 사용하여 그 심각성을 강조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단어는 단순한 ‘거절’을 넘어 ‘권위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다’는 뉘앙스를 지닌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을 주신 행위를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모욕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로 드러난다. 바울은 이처럼 수치의 언어(shame language)를 사용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내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촉구한다.

특히 바울은 “성령을 주신”(διδόντα)이라는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행위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현실임을 강조한다.²⁴⁾ 이는 성령의 내주가 회심의 순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성화의 전 과정에 걸쳐 계속된다는 사실을 드러낸다.²⁵⁾ 성령은 그리스도의 윤리적 명령을 상기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신자의 내면에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다. 바울이 4:3-6에서 제시한 구체적 권면들—음행을 버리고,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명예로 다스리며, 탐욕을 피하는 것—은 모두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²⁶⁾

결국 성령은 명예와 수치의 법정 안에서 신자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증언자이자 인도자이다. 그분은 성도의 마음속에서 도덕적 감정을 형성하고, 그들의 삶이 언약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인도한다. 그러므로 바울에게 성령은 단순한 도덕적 조력자가 아니라, 신자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명예로운 통치를 구현하시는 분이다. 성령의 지속적 임재는 신자의 내면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방식을 보여주며, 언약 백성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ἐν ἁγιασμῷ καὶ τιμῇ, 4:4)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원천이다.

4. 바울의 명예와 수치의 법정의 내면적 차원

바울의 명예와 수치의 법정은 외적 행위나 공동체의 평가를 넘어, 성령의 역사 안에서 형성되는 내면의 도덕 감정과 의지의 변화까지 포괄한다. 바울에게 ‘명예로운 삶’이란 단순히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과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적 차원은 신적 차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24) 참조, Gordon D. Fee,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2009), 154-55; Weima, *1-2 Thessalonians*, 282-83.

25) Fee, *Thessalonians*, 154-55.

26) Beverly R. Gaventa, *First and Second Thessalonia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8), 55.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적 동기가 구체적 행위—특히 성적 순결과 거룩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은 외적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내면에서 비롯된 도덕 감정의 변화, 곧 하나님 중심의 재정향에서 출발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1-8에서 바울은 명예와 수치를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의 평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제로 제시한다. 그는 개인의 내면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재정향될 때 윤리적 판단과 행동이 온전히 형성된다고 본다. 따라서 명예와 수치의 법정의 내면적 차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이 윤리적 판단의 근원이 됨을 보여주는 핵심 요소이다.

4.1. 하나님 중심의 내적 자아

바울의 명예와 수치의 법정에서 내면적 차원은 신적 차원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바울에게 있어 내적 자아는 자충족적 영혼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께 의존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다. 바울은 개인의 명예와 수치를 외적 평판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 동기와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단순한 심리적 정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정체성에 근거한 자기 이해에서 비롯된 내면적 태도이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1-8의 윤리적 권면 단락은 명예와 수치의 내면적 판단이 하나님의 뜻에 근거함을 보여준다.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ἀρεσκεῖν Θεῷ) 배웠으니”(4:1)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적 열망이 명예로운 행동의 윤리적 동기임을 밝힌다.²⁷⁾ 이어지는 윤리적 권면들은 모두 이 내면적 동기에 기초한다. 따라서 명예와 수치는 사회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내면적 방향성에 의해 결정된다.²⁸⁾

바울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4:3a)라고 선언하며, 거룩함(ἁγιασμός)을 명예로운 삶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반대로 음행(4:3b), 정욕(4:5), 간음(4:6)은 수치의 행위를 구체화한다.²⁹⁾ 그는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면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4:7, οὐ … ἀλλὰ)라고 단언하며, 부정(ἀκαθαρσία)은 수치, 거룩함(ἁγιασμός)은 명예를 상징함을 분명히 한다.³⁰⁾ 이처럼 바울은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 내면의 윤리적 방향성의 본질임을 강조한다.

결국 바울의 내면 윤리는 단순한 도덕 수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된 언약 백성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명예로운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정체성을 드러내며, 그 정체성은 외적 행위를 규율할 뿐 아니라 내면의 욕망과 동기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³¹⁾ 따라서 바울에게 윤리적 순종은 단지 명령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새롭게 재정향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이다.

27) Thompson, *Moral Formation*, 64.

28) 참조, deSilva, *Honor, Patronage, Kinship & Purity*, 52-53; Traugott Holtz, *Der Erste Brief an die Thessalonicher*, EKKNT (Zürich/Neukirchen-Vluyn: Benziger/Neukirchener, 1986), 153.

29) 참조, Weima, *1-2 Thessalonians*, 266-76.

30) Thompson, *Moral Formation*, 47: “바울은 공동체의 정체성이 도덕적 행동의 기초가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구성한다.”

31) Thompson, *Moral Formation*, 70-71.

4.2. 성령에 의해 주도되는 내적 자아

바울에게 내면의 변화는 성령의 주도적 사역에 의해 가능하다. 데살로니가전서 4:8은 하나님이 성령을 신자들에게 “주신다”(διδόντα)고 말함으로써, 성령의 내주가 일시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시사한다.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하는 표지가 아니라,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적 동기를 일으키는 주체이다.³²⁾

특히 바울이 “각 사람”(ἐκαστον, 4:4)이라 한 것은, 성령의 사역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지만 동시에 각 개인의 내면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바울에게 윤리적 실천은 집단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따라 은혜로 가능하게 된 신자의 순종의 문제이다. 이처럼 바울은 외적 규율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면의 정향을 윤리의 근간으로 제시한다.

이 구절의 핵심어인 σκεῦος(‘그릇’)과 κτᾶσθαι(‘얻다’, ‘제어하다’)는 바울의 내면 윤리를 드러낸다. 일부는 σκεῦος를 ‘아내’로 해석하지만, 다수 학자들은 이를 ‘자기 몸’으로 이해한다.³³⁾ 바울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ἐν ἁγιασμῷ καὶ τιμῇ) 자기 몸을 제어하라”고 명령하며, 절제의 행위가 외적 규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진 내적 통제의 실천임을 드러낸다. 반대로 “불타는 정욕으로”(ἐν πάθει ἐπιθυμίας, 4:5) 사는 것은 욕망에 의해 지배된 내면의 상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명예로운 자아와 대조된다.

바울에게 성령은 단순히 윤리적 의무의 근원이 아니라, 신자의 내면을 새롭게 하여 변화시키는 인격적 능력이다. 성령은 신자의 마음속에 거룩함을 일으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내적 열망을 새롭게 한다. 비벌리 가벤타(Beverly R. Gaventa)는 “거룩은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되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의 영을 주셨기에 가능하다. ... 서로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살아가게 하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한다.³⁴⁾ 이러한 통찰은 성령이 신자의 내면을 주도하고 재구성함으로써, 하나님이 부여하신 명예로운 정체성을 현실 속에 구현하게 함을 보여준다. 결국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된 내면은 욕망과 충동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하며, 단순한 규범적 순종을 넘어,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명예로운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다.

4.3.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는 내적 자아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에서 내면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변화되며, 동시에 언약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재정향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1-2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예수 안에서”(ἐν κυρίῳ Ἰησοῦ) 권면하며, 이어 “주 예수로 말미암아”(διὰ τοῦ κυρίου Ἰησοῦ) 명령했다고 말한다. 바울의 권면은 단순한 인간적 조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서 주어진 명령이다. 그리스도의 통치에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해 성도들의 내면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해 간다고 강조한다(4:1, ἵνα περισσεύητε μᾶλλον). 이 표현은 단순한 반복적 순종이

32) 참조, Fee, *Thessalonians*, 154-55; Weima, *1-2 Thessalonians*, 282-83.

33) Weima, *1-2 Thessalonians*, 272; Gaventa, *Thessalonians*, 53.

34) Gaventa, *First and Second Thessalonians*, 55.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해 내면이 형성되는 윤리적 성장의 과정을 나타낸다. 철학자들이 자율적 훈련을 통해 ‘덕’(virtue)을 추구했다면,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아브라함 말허비(Abraham J. Malherbe)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신을 기쁘게 한다”는 개념을 사용했음을 지적하지만,³⁵⁾ 바울에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성적 조화가 아니라, 언약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한 복종이다.

철학자들의 자기 수련이 자기 의지에 의존했다면, 바울의 내면 훈련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중보에 의존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1-8에 앞서 등장하는 전환적 기도 단락(3:11-13)에서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간구했다(3:13). 이는 그리스도가 단지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도의 내면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들의 명예로운 정체성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보여준다.³⁶⁾ 조슈아 지프(Joshua W. Jipp) 역시 바울의 윤리를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서 인간의 내적 변영이 형성되는 삶의 방식”으로 이해한다.³⁷⁾ 이처럼 바울은 성도의 내면 훈련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의존하는 관계적 윤리로 제시한다.

바울은 또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종말론적 심판의 권위이자 은혜로운 통치의 명령으로 제시한다. 그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주께서 복수자(ἐκδικος)로 신원하신다”(4:6b)고 말하며, 현재의 윤리적 삶을 종말론적 관점 속에서 조명한다. 이때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이자 심판자로서, 그의 재림은 신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 안에서 명예와 수치의 참된 기준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궁극적 실체가 된다.

5. 바울의 명예와 수치의 법정의 공동체적 차원

바울의 명예와 수치의 법정에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공동체적 차원이다. 바울에게 개인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공동체 안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집단 지향적 이해는 바울의 신학뿐 아니라, 1세기 지중해 세계 전체에 깊이 자리 잡은 문화적 전제였다.³⁸⁾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명예와 수치의 법정으로 제시하며, 그 안에서 신자들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가르친다.³⁹⁾ 교회는 명예와 수치의 법정의 원리를 복음적 질서 안에서 구현하도록 부름받은 언약 공동체이다. 그 공동체의 윤리적 구조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정의된다. 즉,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개인들로 구성된 새 언약 공동체이며,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은 바로 이 공동체적 맥락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5.1. 이방인들로부터 구별된 언약 공동체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에는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의 분명한 구별이 나타난다. 제프리 와이마(Jeffrey A. D. Weima)는 “바울은 거룩함, 특히 성적 행위에 있어서의 거룩함을 세상,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신자들을 구분하는 표식 혹은 경계 표지로 보았다”고 말한

35) Abraham J. Malherbe,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 AB (New York: Doubleday, 2000), 220.

36) 참조, Thompson, *Moral Formation*, 70-71.

37) Joshua W. Jipp, *Pauline Theology as a Way of Life: A Vision of Human Flourishing in Chris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3), 121-22.

38) Malina, *The New Testament World*, 65-73.

39) deSilva, *Honor, Patronage, Kinship & Purity*, 55.

다.⁴⁰⁾ 데살로니가전서 4:1의 복수형 호격 “형제들아”(ἀδελφοί)와 2인칭 복수 대명사 “너희”(ὁ μὲν)는 바울의 권면이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집단적 성격을 가짐을 보여준다. 바울은 이 권면을 통해 교회가 명예로운 내부자 공동체로서 외부의 문화적 가치로부터 구별된, 은혜로 부여받은 윤리적 정체성을 드러내야 함을 강조한다.

이 대조는 4:4-5에 등장하는 “두 가지 길”(the two ways)–“거룩함과 존귀함으로”(ἐν ἁγιασμῷ καὶ τιμῇ)와 “불타는 정욕으로”(ἐν πάθει ἐπιθυμίας)–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구분	내용	윤리적 의미
내부자(교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ἐν ἁγιασμῷ καὶ τιμῇ)	명예의 길
외부자(이방인)	“불타는 정욕으로”(ἐν πάθει ἐπιθυμίας)	수치의 길

내부자의 길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는 바울이 새롭게 만든 개념이 아니라, 구약의 언약 백성 이해와 직접 연결된다. 신명기 26:18-19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ἅγιον) 이스라엘을 “찬송과 명예와 영광”(ὄνομαστόν καὶ καύχημα καὶ δόξασιόν)으로 삼으셨다고 말한다. 이 본문은 ‘거룩함’과 ‘명예’가 언약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쌍 개념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4:4의 “거룩함과 존귀함으로”라는 표현은 언약적 윤리의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⁴¹⁾ 교회는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룩함과 명예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한다.

특히 “거룩함과 존귀함으로”(4:4)라는 어구는 내부자인 언약 백성 공동체의 윤리적 실천 방식을 제시한다. 거룩함(ἁγιασμός)은 수직적 차원, 즉 하나님의 뜻(4:3)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명예를 가리킨다. 반면 존귀함(τιμή)은 수평적 차원, 곧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 속에서 명예가 구체화되는 방식을 나타낸다. 그것은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태도를 뜻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σκεῦος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여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다. 바울은 개인의 욕망보다 복음으로 부름받은 공동체의 거룩과 명예를 우선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바로 이것이 언약 백성의 도덕적 가치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실천이다.

반대로 “불타는 정욕으로”(ἐν πάθει ἐπιθυμίας)는 이방인의 자기중심적 윤리를 대표한다. 철학자들 역시 욕망의 절제를 강조했지만, 그들은 이성을 통해 덕을 완성하려는 자기수양에 초점을 맞추었다. 바울은 이러한 헬레니즘적 자율 윤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4:5)을 욕망의 지배 아래 사는 자들로 규정한다. 이방인은 이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와 수치의 기준을 무시한다.⁴²⁾ 반면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언약 공동체로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신들의 σκεῦος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 표지이기 때문이다(참조, 롬 31:34).⁴³⁾ 결국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은 개인의 자율적 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언약 공동체가 은혜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명예로운 윤리로 확립된다.

40) Weima, “1-2 Thessalonians,” i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eds. G. K. Beale and D. A. Cars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7), 877.

41) Thompson, *Moral Formation*, 76; Holtz, *Der Erste Brief*, 158-59.

42) 참조, Weima, “1-2 Thessalonians,” 877.

43) Deidun, *New Covenant Morality in Paul*, 19.

5.2.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언약 공동체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가족, 곧 언약 공동체로 이해한다. 이러한 인식은 데살로니가전서 4:1-8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바울은 이 단락을 “형제들아”(ἀδελφοί, 4:1)라는 가족적 호칭으로 시작하는데, 이 호칭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실제적 결속을 강화하는 언약적 언어이다. 고대 철학자들, 특히 피타고라스와 에피쿠로스 학파도 제자들을 ‘가족’으로 부르며 소속감을 강조했지만, 바울의 가족 은유는 단순한 철학적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는 실제적 관계에 근거한다.⁴⁴⁾ 따라서 교회의 구성원들은 서로를 하나님의 자녀요 형제자매로 인식하며, 그 관계 안에서 거룩과 명예를 실천하도록 부름받았다.

바울은 교회가 이러한 가족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도록 구체적으로 권면한다. 그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넘어서는 일(ὑπερβαίνειν)과 그의 형제를 속이는 일(πλεονεκτεῖν)을 하지 말라”(4:6a)고 말한다. 일부 학자들은 이 구절을 상업적 부정행위로 해석하지만,⁴⁵⁾ 맥락상 이는 공동체 내에서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 즉 형제의 아내나 여종과의 간통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⁴⁶⁾ 바울의 금지 명령은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이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언약적 권면이다. 그는 한 남성이 다른 형제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행위를 ‘형제를 속이는 것’으로 묘사하며, 그것이 언약 가족 전체의 수치를 초래하는 행위임을 경고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구약 율법, 특히 레위기 18장에 나타난 근친상간 금지 규정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그곳에서 가족 구성원 간의 부적절한 성적 관계는 단순한 개인적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질서에 대한 모독으로 규정된다. 레 18:16에서 성 관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완곡어구 *גָּלַח*는 수치의 뉘앙스를 담고 있다: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다’(to uncover the nakedness).⁴⁷⁾ 바울은 이 개념을 확장하여, 영적 가족인 교회 안에서의 불순종도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로 본다. 그는 음행을 범한 남성이 그 여성의 남편(또는 주인)을 “그의 형제”(τὸν ἀδελφὸν αὐτοῦ)라 부름으로써,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질서를 훼손하는 사건임을 분명히 한다. 한 구성원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가족 전체의 거룩과 명예를 손상시키며,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된다.⁴⁸⁾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4:4) 서로를 대하라고 촉구한다.

결국 바울의 권면은 성적 행위를 개인의 도덕 문제로 축소하지 않는다. 그는 교회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관계 질서 안에서 이해하며, 거룩한 삶을 가족 사랑의 실천으로 제시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로서 서로를 거룩함과 존귀함 가운데 대해야 한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전체의 명예를 드러내는 언약적 응답이다.

44) 참조, Wayne A. Meeks, *The First Urban Christians: The Social World of the Apostle Paul*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3), 83-84.

45) 예를 들어, RSV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아무도 사업에서 형제를 속여 범죄하지 말라.” 참조, Holtz, *Der Erste Brief*, 161-62.

46) Weima, *1-2 Thessalonians*, 274-76.

47) 참조, Allen P. Ross, *Holiness to the Lord: A Guide to the Exposition of the Book of Leviticus* (Grand Rapids: Baker, 2002), 344.

48) Malina, *New Testament World*, 50; deSilva, *Honor, Patronage, Kinship & Purity*, 24-27.

5.3. 명예와 수치의 법정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데살로니가전서 4:1-8에서 바울의 윤리적 권면은 교회 안에서 가족 관계를 기반으로 구현되는 명예와 수치의 법정으로 제시된다. 그가 교인들을 “형제들아”(ἀδελφοί, 4:1)라고 부르며 단락을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규정하는 신학적 선언이다. 바울은 권위 있는 사도이지만(2:7), ‘어린아이’(νήπιοι)처럼(2:7b) 거짓 없고 순수하며,⁴⁹⁾ ‘유모’(τροφός)처럼(2:7c) 사랑으로 돌보고, ‘아버지’(πατήρ)처럼(2:11) 자녀를 양육 하듯 권면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과 명예의 삶을 실천하도록 이끈다. 특히 바울은 자녀에게 올바른 삶의 자세를 조언하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2:11).⁵⁰⁾ 이는 구약의 지혜 전통에서 부모가 자녀를 명예롭게 살도록 가르친 모습과 유사하나, 바울은 육신의 가족을 넘어 언약적 가족 공동체인 교회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의 권면은 ‘명령’이 아니라 ‘요청’의 언어로 되어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구하고(ἐρωτῶμεν) 권면한다(παρακαλοῦμεν) (4:1).⁵¹⁾ 이를 통해 바울은 신자들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룩함(4:3a)을 따라 명예로운 삶을 추구하도록 호소한다.

바울의 목회적 관심은 단순한 도덕 교훈을 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거룩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타난다. 비록 4:1-8에서는 직접적인 기도가 언급되지 않지만, 바로 앞의 기도 단락(3:11-13)은 그의 윤리적 권면의 기초를 형성한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께 교회가 “주의 강림 때에 흠 없고 거룩하게 되기를”(3:13) 간구하며, 기도를 통해 교회의 거룩을 하나님께 맡긴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르치며 동시에 그 뜻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영적 아버지로서, 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단순한 인간적 노력이나 규율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로 바라보며 데살로니가 교회가 흠 없고 거룩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

결국 바울에게 교회가 명예와 수치의 법정을 구현하는 목적은 잘못된 자를 판단하거나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권면하고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데 있다(참조, 고전 4:14). 그는 “하나님이 우리(ἡμεῖς)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4:7)고 선포하면서, 이 부르심이 바울 자신과 데살로니가 교회 모두에게 주어진 언약적 소명임을 강조한다.⁵²⁾ 교회 공동체 전체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그들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내는 가족, 곧 명예로운 언약 공동체로 서는 것이다.

6. 바울의 명예와 수치의 법정의 종말론적 차원

바울의 명예와 수치의 법정은 단순히 미래적 종말(future eschaton)만이 아니라, 종말론적 현재(eschatological present)를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지금 교회를 다스리시며, 장차 궁극적인 명예와 수치의 법정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종말론적

49) 데살로니가전서 2:7b의 본문에는 필사본에 따라 νήπιοι(“어린아이들”)와 ἡπιοι(“유순한 자들”)의 두 가지 독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여러 중요한 사본들(ℳ⁶⁵, κ*, B, C*, D*, I 등)이 νήπιοι를 지지하며, 이는 더 어려운 독법(lectio difficilior)로 평가된다. 이 독법은 이어지는 “유모”(2:7c)와 “아버지”(2:11)의 비유와 함께 가족적 점층 구조를 형성하여, 바울의 진정성과 순수함을 더욱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자세한 논의는 Weima, *1-2 Thessalonians*, 180-87을 참조하라.

50) Thompson, *Moral Formation*, 64.

51) Weima, *1-2 Thessalonians*, 254-55.

52) 참조, Holtz, *Der Erste Brief*, 164-65.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주어진 거룩과 명예가 최종 심판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1-8에서 종말론적 법정을 상기시키며,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촉구한다.

6.1. 종말론적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데살로니가전서 4:1-8에는 명예와 수치의 법정의 종말론적 차원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왕이실 뿐 아니라 모든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다. 과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던 그리스도는 이제 바울의 권면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신다(4:1-2).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속한 종말론적 백성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명령에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 과정에서 성령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이 과정에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신자들의 마음에 적용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내면을 새롭게 하고 인도하신다(4:8).

바울은 그리스도를 종말론적 심판자로 제시한다. 그는 음행, 정욕, 간음과 같은 수치스러운 행위(4:3b-6a)를 언급하며 “주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해 복수자이시다”(διότι ἐκδικὸς ὁ κύριος περὶ πάντων τούτων, 4:6b)라고 선언한다. 이 “복수자”라는 표현은 구약의 언약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언약에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사용된 언어이다(출 7:4; 12:12; 신 32:35; 시 18:47; 94:1; 렘 11:20; 암 3:2, 14; 미 5:15; 나 1:2). 그러나 바울은 이 언어를 그리스도께 적용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리스도가 최종 심판의 복수자이심을 밝힌다. 여기서 ‘주’(Lord)는 주 예수를 가리킨다.⁵³⁾

시편 94편은 이러한 종말론적 심판 개념을 현재적 통치의 차원으로 확장한다. 시편 기자에게 주님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공동체의 명예를 회복하고 언약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은혜로운 징계의 행위이다.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시 94:12)라는 고백은, 징계가 심판의 한 형태이면서 동시에 언약적 교훈의 통치임을 보여준다.⁵⁴⁾ 바울의 이해도 이와 같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단순한 응보가 아니라, 현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언약적 징계, 곧 종말의 심판이 현재적 통치로 실현되는 사건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명예와 수치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동시에 드러나는 종말론적 현재의 언약적 통치 행위이다.

바울은 이러한 시편의 관점을 따라,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종말의 심판이 현재적으로 작동함을 강조한다.⁵⁵⁾ 그는 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을 이방인들과 동일시하며(4:5), “형제”(4:6a)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들에 대해 주님의 심판을 경고한다. 결국 바울의 권면을 통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짓 신자들은 종말의 법정에서 수치를 당할 것이며, 반대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 곧 참된 신자는 바울을 통한 그리스도의 교훈과 은혜로운 징계를 통해 현재적으로 명예를 회복하며, 장차 완전한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심판을 미래의 심판으로만 보지 않고, 현재 교회 안에서 실현되는 은혜로운 통치로 이해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적 공동체로서 주님의 명령에

53) Weima, “1-2 Thessalonians,” 877.

54) James L. Mays, *Psalms*, IBC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4), 302-03.

55) Weima, *1-2 Thessalonians*, 277.

순종하며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한다.

6.2. 종말론적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는 종말론적 공동체로 묘사된다.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4:1)라는 반복된 동사 ἐρωτῶμεν 과 παρακαλοῦμεν을 통해 자신이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윤리적 훈련을 가르쳤음을 상기시킨다. 이어지는 “명령”(παραγγελίας, 4:2)이라는 용어는 그의 권면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주 예수의 명령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를 통해 전해진 윤리적 가르침을 종말론적 왕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내주하심과 능력에 힘입어 순종해야 한다.

또한 바울은 “주께서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복수자”(4:6b)라고 경고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임박한 심판을 강조한다. 그레고리 빌(Gregory K. Beale)은 “이 심판은 단지 징계가 아니라,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 종말론적 판단”이라고 설명한다.⁵⁶⁾ 참된 신자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은혜로 부름받은 자임을 드러내며, 이방인처럼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삶으로 인해 언약 공동체 밖에 속한 자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신자가 구원을 잃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도의 견인을 통해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들이 참된 신자임이 드러난다. 따라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복 있는 주님의 백성(시 94:12)으로 바라보며 거룩함에 대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기대한다.

종말론적 심판은 신자에게 두려움의 사건이라기보다, 경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완전히 드러나는 명예와 수치의 법정의 완전한 실현이다. 현재 교회 안에서는 인간의 판단이 불완전하여 감춰진 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참조, 4:6의 πλεονεκτεῖν, “속여 이익을 취하다”), 미래 최후의 심판에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도와 행위를 드러내신다. 바울은 이 미래의 법정을 상기시킴으로써,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응답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한다.⁵⁷⁾

7. 결론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방인 회중으로 구성된 교회 안에 ‘명예와 수치의 법정’이라는 수사학적 개념을 적용하여,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윤리적 삶을 재형성하고, 특히 거룩함을 공동체의 명예와 직결된 윤리적 가치로 제시한다. 바울의 명예와 수치의 수사학은 단순한 문화적 수용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호소하여 하나님 중심의 가치와 행위를 일깨우는 신학적 도구이다. 이 개념은 구약의 언약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새 언약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된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명예로운 언약 백성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한다.

56) Gregory K. Beale, *1-2 Thessalonians*, IVPNTC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3), 122: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단지 진정한 신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아니다. 오히려 이전 이교도적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그들의 신앙이 참된 것이라고 확신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방인처럼 사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57) Weima, *1-2 Thessalonians*, 275-76.

본 연구는 데살로니가전서 4:1-8의 윤리적 가르침을 ‘명예와 수치의 법정’이라는 틀 안에서 네 가지 차원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신적 차원에서 바울은 명예와 수치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 곧 거룩으로 제시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윤리의 근원이자 심판자로 선포한다. 둘째, 내면적 차원에서 그는 명예와 수치의 법정을 인간의 마음 안에 두되, 그 판단이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형성됨을 강조한다. 셋째, 공동체적 차원에서 바울은 교회를 언약 백성의 공동체로 규정하고, 세상과 구별된 내부자로서 서로의 명예를 지키며 거룩과 존귀함으로 살아가도록 촉구한다. 넷째, 종말론적 차원에서 그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며, 은혜로 받은 거룩을 현재의 삶 속에서 드러내도록 권면한다. 이처럼 바울의 윤리적 가르침은 단순한 행위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언약 백성의 삶의 방식이다.

참고문헌

- Alexander, Loveday. "Better to Marry than to Burn." Pages 235-56 in *Ancient Fiction and Early Christian Narrative*. Edited by R. F. Hock, J. B. Chance, and Judith Perkins. Atlanta: Scholars Press, 1998.
- Bauer, Walter, and William F. Arndt.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Edited by Frederick W. Danker.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Beale, G. K. *1-2 Thessalonians*. IVPNTC.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03.
- Carras, George P. "Jewish Ethics and Gentile Converts Remarks on 1 Thess 4:3-8." Pages 306-315 in *The Thessalonian Correspondence*. Edited by Raymond F. Collins.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0.
- Cartlidge, David R. "1 Corinthians 7 as a Foundation for a Christian Sex Ethic." *JR* 55 (1975): 220-34.
- Collins, Raymond F. "'This is the Will of God: Your Sanctification' (1 Thess 4:3)." *LTP* 39 (1983): 27-53.
- Deidun, T. J. *New Covenant Morality in Paul*. AnBib 89. Rome: Biblical Institute Press, 1981.
- deSilva, David A. *Despising Shame: Honor Discourse and Community Maintenance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SBLDS 152. Atlanta: Scholars Press, 1995.
- . *Honor, Patronage, Kinship & Purity: Unlocking New Testament Culture*. 2nd ed.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22.
- Ellis, J. Edward. *Paul and Ancient Views of Sexual Desire: Paul's Sexual Ethics in 1 Thessalonians 4, 1 Corinthians 7 and Romans 1*. New York: T&T Clark, 2007.
- Fee, Gordon D. *The First and Second Letters to the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2009.
- Frederickson, David. "Passionless Sex in 1 Thessalonians 4:4-5." *WW* 23 (2003): 23-30.
- Gaventa, Beverly R. *First and Second Thessalonia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8.
- Hodgson, Robert, Jr. "1 Thess 4:1-12 and the Holiness Tradition (HT)." Pages 199-215 in *SBLSP 1982*. Edited by K. H. Richards. Chico, CA: Scholars Press, 1982.
- Holtz, Traugott. *Der Erste Brief an die Thessalonicher*. EKKNT. Zurich: Benziger; Neukirchen-Vluyn: Neukirchen Verlag, 1986.
- Jipp, Joshua W. *Pauline Theology as a Way of Life: A Vision of Human Flourishing in Chris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3.
- Klassen, William. "Foundations for Pauline Sexual Ethics as Seen in I Thess. 4:1-8." Pages 159-181 in *SBLSP 1978*. Edited by P. J. Achtemeier. Atlanta: Scholars Press, 1978.
- Lau, Te-Li. *Defending Shame: Its Formative Power in Paul's Letter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20.
- Lim, Chungyeol. "Paul's Use of the Rhetoric of Honor and Shame in Sexual Ethics: A Study of Paul's Moral Teaching of Sexuality." PhD d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2025.

- Mackie, Scott D. "The Two Tables of the Law and Paul's Ethical Methodology in 1 Corinthians 6:12-20 and 10:23-11:1." *CBQ* 75 (2013): 315-34.
- Malherbe, Abraham J. *The Letters to the Thessalonian*. AB. New York: Doubleday, 2000.
- Malina, Bruce J. *The New Testament World: Insights from Cultural Anthropology*. 3rd ed.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1.
- Marshall, I. Howard. *1 and 2 Thessalonians*. Grand Rapids: Eerdmans, 1983.
- Martin, Dale B. "Paul without Passion: On Paul's Rejection of Desire in Sex and Marriage." Pages 201-215 in *Constructing Early Christian Families: Family as Social Reality and Metaphor*. Edited by Halvor Moxnes. New York: Routledge, 1997.
- Mays, James L. *Psalms*. IBC.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4.
- Mchami, Ronilick E. K. "Paul's Use of the Instructions of the Mosaic Law in His Paraenesis: 1 Thessalonians 4:1-8." *Africa Theological Journal* 29 (2006): 74-90.
- Meeks, Wayne A. *The First Urban Christians: The Social World of the Apostle Paul*.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2003.
- Pao, David W. "Let No One Despise Your Youth: Church and the World in the Pastoral Epistles." *JETS* 57, no. 4 (2014): 743-55.
- Pitt-Rivers, Julian. "Honour and Social Status." Pages 21-77 in *Honour and Shame: The Values of Mediterranean Society*. Edited by John G. Peristiany. London: Weidenfeld and Nicolson, 1966.
- Richards, Randolph, and Richard James. *Misreading Scripture with Individualist Eyes: Patronage, Honor, and Shame in the Biblical World*. Downers Grove, IL: IVP Academic, 2020.
- Rosner, Brian S. *Paul, Scripture, & Ethics: A Study of 1 Corinthians 5-7*. Grand Rapids: Baker, 1999.
- Ross, Allen P. *Holiness to the Lord: A Guide to the Exposition of the Book of Leviticu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2.
- Shogren, Gary S. *1 & 2 Thessalonians*. ZECNT. Grand Rapids: Zondervan, 2012.
- Smith, Jay E. "1 Thessalonians 4:4: Breaking the Impasse." *BBR* 11 (2001): 65-105.
- . "The Interpretation of 1 Corinthians 6:12-20 and Its Contribution to Paul's Sexual Ethics." PhD diss.,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1996.
- Thompson, James W. *Moral Formation according to Paul: The Context and Coherence of Pauline Ethics*.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1.
- Tomson, Peter J. *Paul and the Jewish Law: Halakha in the Letter of the Apostle to the Gentiles*. Minneapolis: Fortress, 1990.
- Watson, Francis. *Agape, Eros, Gender: Toward a Pauline Sexual Ethi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Weima, Jeffrey A. D. *1-2 Thessalonians*. BECNT.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14.
- . "1-2 Thessalonians." Pages 871-89 in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Use of the Old Testament*. Edited by G. K. Beale and D. A. Carson. Grand Rapids: Baker, 2007.
- . "'How You Must Walk to Please God': Holiness and Discipleship in 1 Thessalonians." Pages 98-119 in *Patterns of Discipleship in the New Testament*. Edited by Richard N. Longenecker. Grand Rapids: Eerdmans, 1996.

Yarbrough, Robert W. "Sexual Gratification in 1 Thess 4:1-8." *TJ* 20 (1999): 215-32.